

독일의 포용적 성장

# 통일 30년 독일의 국제적 위상

- 1990년 통일

- ▶ 인구 8,100만 명, 면적 35만 7,000km<sup>2</sup>로 유럽에서 인구 1위, 면적 3위의 국가로 변모

- ▶ 유럽 내 제1의 내수시장

- 통일된 독일은 이에 걸맞게 변화된 국제 상황에 맞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였으나 통일 후유증으로 인해 유럽의 병자로 치부 됨

- 그러나 현재 독일은 유럽의 성장 엔진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음

# 통일 된 독일의 스마트 파워

- 스마트 파워

- ▶ 비물질적, 관계적 측면을 바탕으로 한 매력과 연관되는 개념

- ▶ 정치인들의 리더십, 협치의 태도, 국민의 정직성, 과거사 반성, 사회의 투명성, 법치 사회, 음악, 철학 등의 요소

- ▶ 난민 신청과 인정

- ▶ 국가이미지

- ▶ 법치지수

- ▶ 삶의 질

# 통일된 독일의 스마트 파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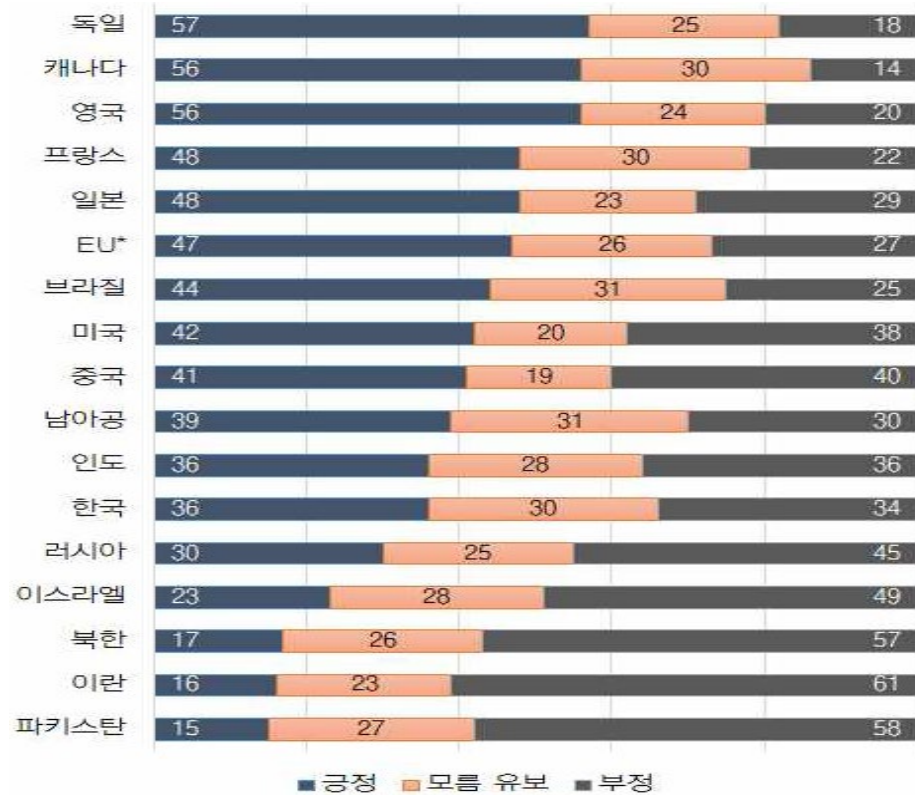
- 난민신청과 인정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난민 인정(명)	인정률(%)
독일	21030	19160	22090	17650	41330	45740	64540	109580	173070	441900	722270	198260	689,961	31.7%
영국	28320	28300	31320	30680	22640	25900	27980	29400	31260	39970	39240	33320	224,718	19.4%
프랑스	30750	29390	35400	42120	48070	52150	55070	60230	59030	74300	76790	91070	253692	16.5%
오스트리아	13350	11920	12840	15820	11010	14240	17140	17500	28060	85260	39880	22160	104,253	39.6%
벨기에	11590	11120	12250	17190	21760	26000	18530	12500	18370	38700	14250	14040	75,771	25.3%
스웨덴	24300	36370	24350	24190	31820	29650	43880	54260	75090	156460	22330	22190	81,110	10.2%
캐나다	22870	28340	34800	33970	22540	24990	20220	10360	13450	16070	23830	50470	207,843	51.8%
미국	41100	40450	39360	38080	42970	60590	66100	68240	121160	172740	261970	329800	402,745	51.8%

<https://www.oecd.org/els/mig/keystat.htm>

# 통일 독일의 스마트 파워

- 국가이미지



정한울, “세계가 본 17개 파워국가의 이미지”, (2014), 2쪽.

# 통일된 독일의 스마트 파워

- 법치지수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2019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2017 - 2018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2016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2015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독일

<https://worldjusticeproject.org/our-work/publications/rule-law-index-reports>

# 통일 된 독일의 스마트 파워

- 삶의 질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넘비오	6	2	4	2	3	2
인간개발지수	5	4	4	6	6	5

[https://www.numbeo.com/quality-of-life/rankings\\_by\\_country.jsp?title=2012-Q1](https://www.numbeo.com/quality-of-life/rankings_by_country.jsp?title=2012-Q1)

<http://hdr.undp.org/en/global-reports>

# 통일 된 독일의 하드파워

- 하드파워

- ▶ 군사력

- ▶ 안보수입국 → 안보수출국

- ▶ 경제력

- ▶ 유럽의 병자 → 유럽의 성장 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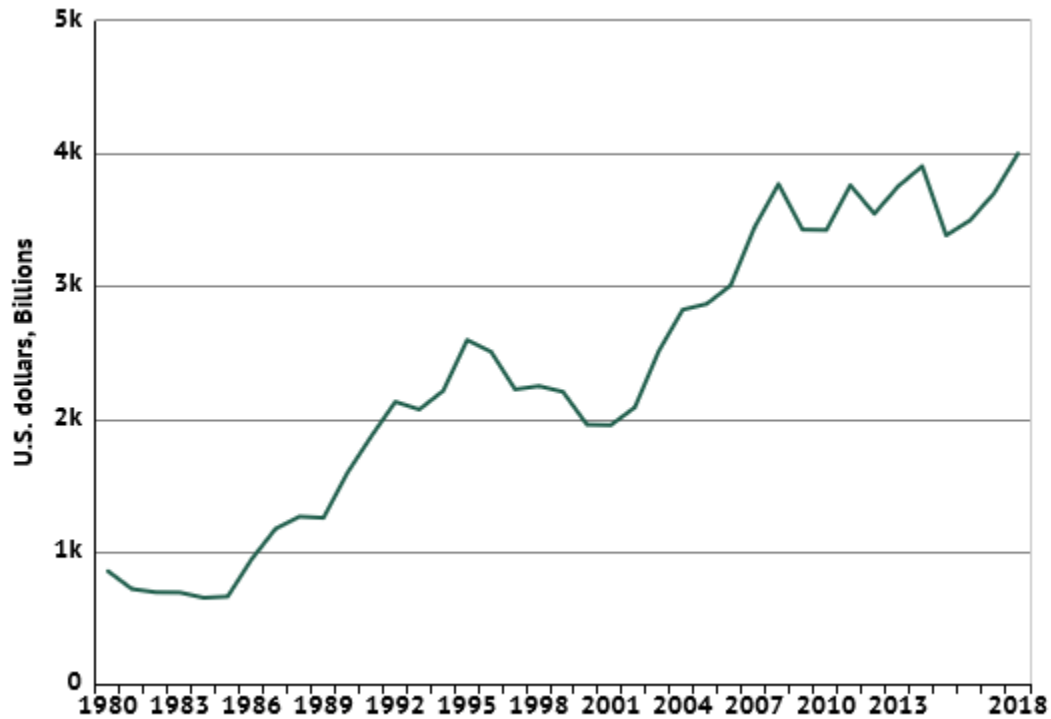
# 통일 된 독일의 하드파워 - 군사력

파견업무	파견지역	최초 주둔	주둔 종료	최대 병력
RSM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확고한 지원업무)	아프가니스탄	2015.01.01	2019.03.21	1300
KFOR (코소보 주둔군)	코소보	1999.06.12	2019.06.23	800
UNMISS (남수단의 유엔임무)	남수단	2011.07.08	2020.03.31	50
UNAMID (남수단에서의 유엔-아프리카연합 업무)	수단	2007.11.15	2020.03.31	50
UNIFIL (국제연합 레바논 잠정군)	레바논	2006.09.20	2019.06.30	300
EUTM Mali (말리 유엔연합 훈련임무)	말리	2013.02.28	2020.05.31	350
MINUSMA (말리에서의 유엔 다차원 통합 안정화 임무)	말리	2013.02.28	2020.05.31	1100
MINURSO (국제연합 서부 사하라 선거지원단)	서사하라	2013.10.16	기한없음	20
EUNAVFOR (유럽연합해군)	지중해	201.10.01	2019.06.30	950
Sea Guardian (나토임무)	지중해	2016.09.29	2020.03.31	650
NAVFOR Atalanta (유럽연합해군)	소말리아	2008.12.19	2020.05.30	400
Anti-IS-Einsatz/ Faehigkeitsaufbau Irak (반 이슬람 국가(IS) 지원과 이라크 안정화)	근동지역	2015.12.04	2019.10.31	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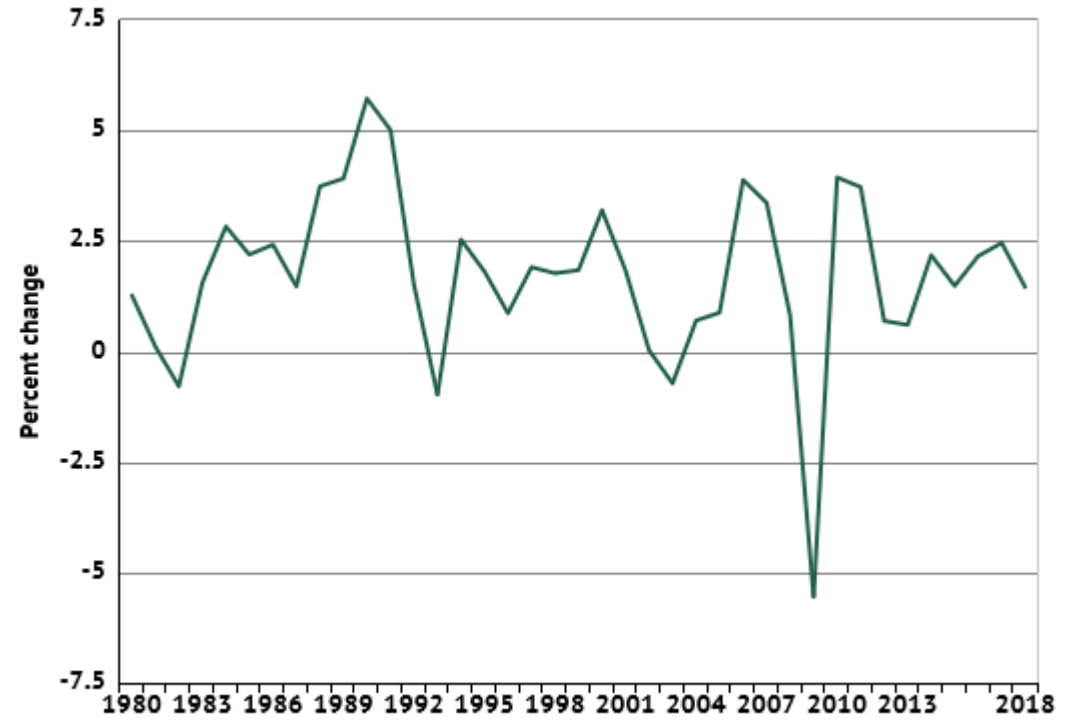
<https://www.bundeswehr.de>

# 독일의 GDP

·명목 GDP



·실질 GDP



• 세계 주요국의 명목 GDP (단위 billion US Dollars)

	2018 (전년대비%)	2017	2016	2015	2014
미국	20,494.05 (5.18%)	19,485.40 (4.16%)	18,707.15 (2.68%)	18,219.30 (3.98%)	17,521.75 (4.39%)
중국	13,407.40 (11.15%)	12,062.28 (7.49%)	11,221.84 (-0.04%)	11,226.16 (6.57%)	10,534.53 (9.34%)
일본	4,971.93 (2.30%)	4,859.95 (-1.35%)	4,926.67 (12.24%)	4,389.48 (-9.50%)	4,850.41 (-5.92%)
독일	<b>4,000.39</b> <b>(8.10%)</b>	<b>3,700.61</b> <b>(5.83%)</b>	<b>3,496.61</b> <b>(3.36%)</b>	<b>3,383.09</b> <b>(-13.36%)</b>	<b>3,904.92</b> <b>(4.03%)</b>
영국	2,828.64 (7.15%)	2,639.97 (-1.09%)	2,669.11 (-7.87%)	2,897.06 (-4.59%)	3,036.31 (1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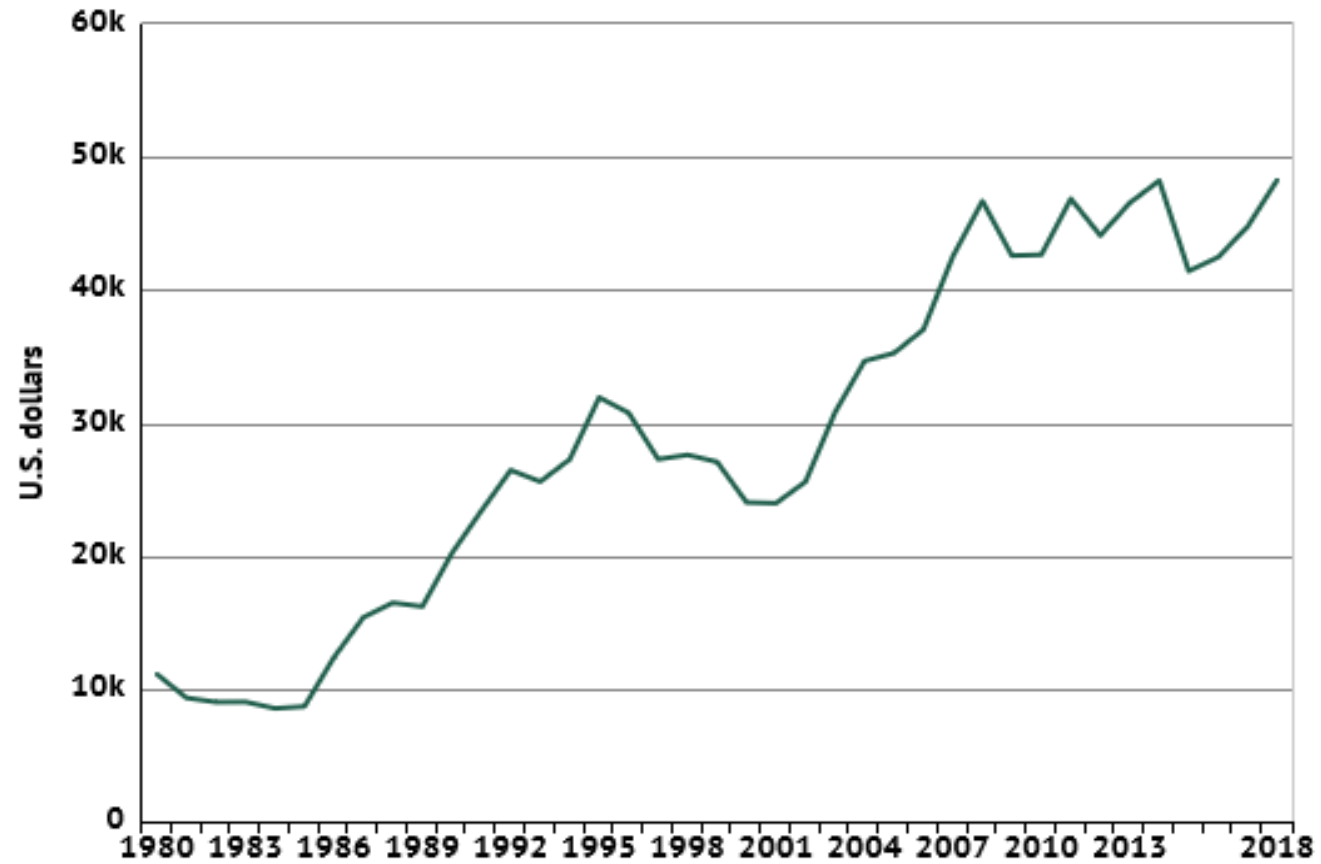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09

• 세계주요국의 실질 GDP 성장률(%)

국가 (순위/190국가)	2018 (전년대비%)	2017	2016	2015	2014
중국 (17)	6.6 (-2.81)	6.8 (6.34)	6.7 (-2.41)	6.9 (-5.48)	7.3 (-6.41)
미국 (106)	2.9 (28.87)	2.2 (41.48)	1.6 (-45.61)	2.9 (17.50)	2.5 (33.12)
캐나다 (143)	1.8 (-38.44)	3.0 (169.11)	1.1 (60.43)	0.7 (-75.94)	2.9 (23.09)
프랑스 (148)	1.5 (-29.62)	2.2 (84.54)	1.2 (5.21)	1.1 (16.42)	1.0 (65.97)
<b>독일 (151)</b>	<b>1.5 (-40.88%)</b>	<b>2.5 (13.86)</b>	<b>2.2 (45.35)</b>	<b>1.5 (-31.83)</b>	<b>2.2 (261.63)</b>
영국 (154)	1.4 (-23.31)	1.8 (1.90)	1.8 (-23.84)	2.3 (-20.32)	2.9 (44.09)
일본 (165)	0.8 (-57.96)	1.9 (216.75)	0.6 (-50.20)	1.2 (226.13)	0.4 (-81.25)

IMF: World Economic Outlook (WEO) Database, April 2019

- 독일의 일인당 국민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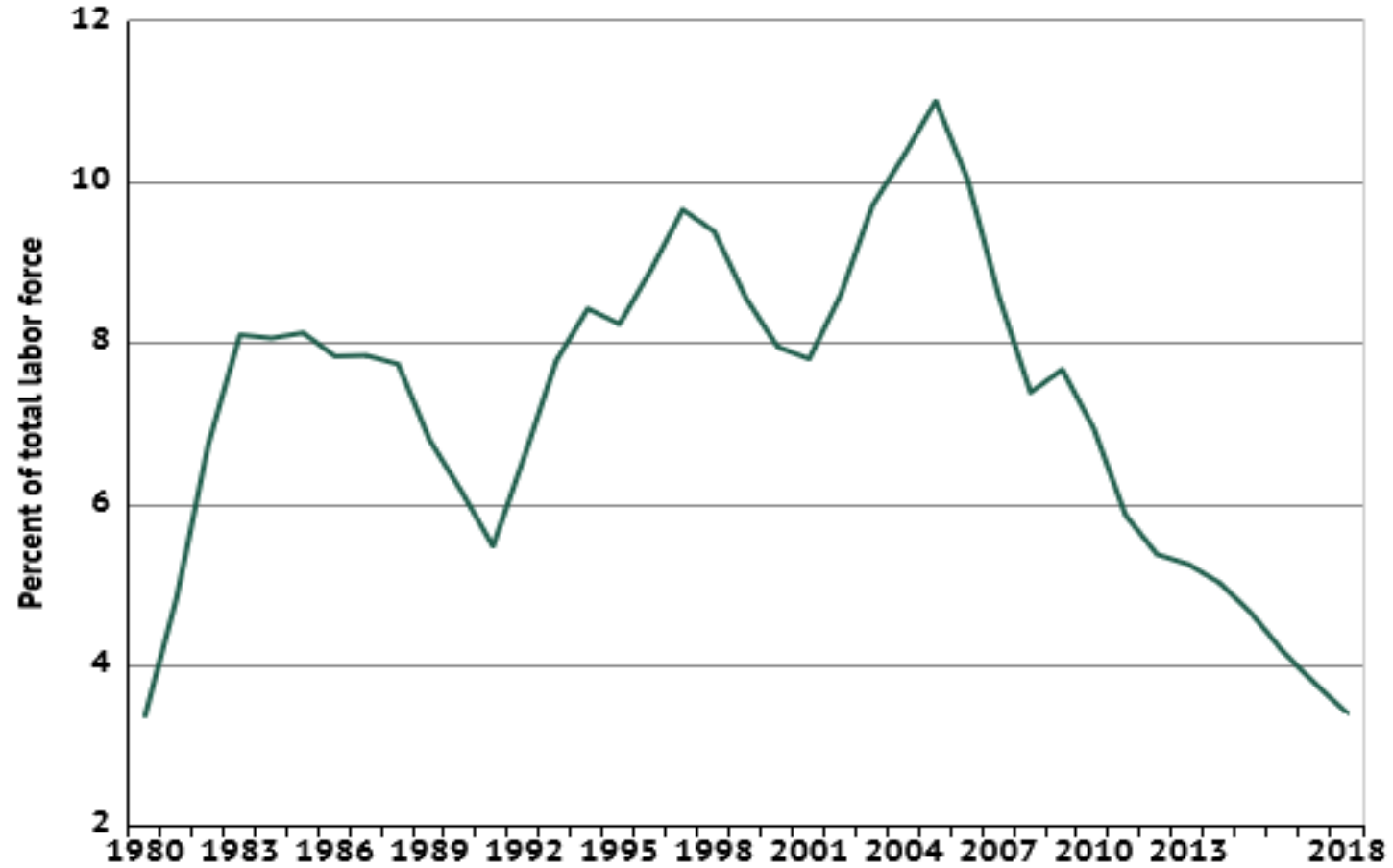
IMF: World Economic Outlook (WEO) Database, April 2019

• 세계 주요국의 일인당 국민소득(US dollars)

국가 (순위/189국가)	2018 (작년대비 %)	2017	2016	2015	2014
미국 (9)	62,606 (4.53%)	59,895 (3.49)	57,877 (1.95)	56,770 (3.23)	54,993 (3.64)
<b>독일 (18)</b>	<b>48,264 (7.80)</b>	<b>44,771 (5.44)</b>	<b>42,461 (2.52)</b>	<b>41,415 (-14.11)</b>	<b>48,219 (3.60)</b>
캐나다 (20)	46,261 (2.29)	45,224 (6.54)	42,447 (-2.68)	43,616 (-14.41)	50,958 (-3.35)
프랑스 (21)	42,878 (7.07)	40,046 (4.68)	38,253 (0.83)	37,938 (-14.97)	44,616 (1.07)
영국 (22)	42,558 (6.46)	39,975 (-1.68)	40,658 (-8.62)	44,495 (-5.34)	47,004 (9.36)
일본 (26)	39,306 (2.51)	38,344 (-1.19)	38,805 (12.25)	34,569 (-9.40)	38,156 (-5.76)

IMF: World Economic Outlook (WEO) Database, April 2019

- 독일 실업률



IMF: World Economic Outlook (WEO) Database, April 2019

- 주요국의 실업률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일본	2.4	2.8	3.1	3.4	3.6
<b>독일</b>	<b>3.4</b>	<b>3.8</b>	<b>4.2</b>	<b>4.6</b>	<b>5.0</b>
중국	3.8	3.9	4.0	4.1	4.1
미국	3.9	4.4	4.9	5.3	6.2
영국	4.1	4.4	4.9	5.4	6.2
캐나다	5.8	6.3	7.0	6.9	6.9
프랑스	9.1	9.4	10.1	10.4	10.3
이탈리아	10.6	11.3	11.7	11.9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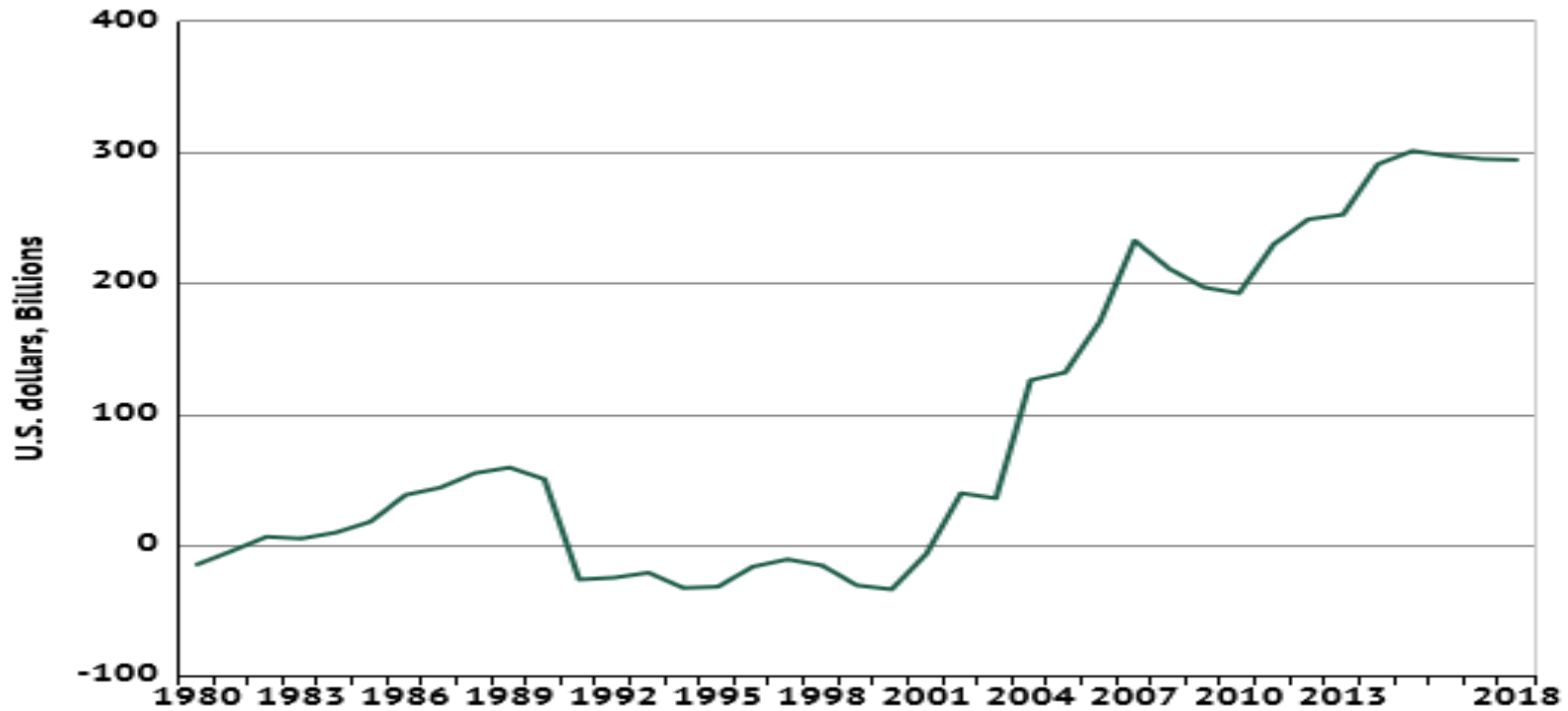
IMF: World Economic Outlook (WEO) Database, April 2019

# • 무역규모

순위	국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	중국	수출액	2,280,540	2,136,595	2,280,094	2,474,149
		수입액	1,601,760	1,589,460	1,832,126	2,135,261
		무역수지	678,780	547,135	447,968	338,888
2	미국	수출액	1,504,570	1,453,699	1,545,605	1,654,007
		수입액	2,241,660	2,189,178	2,342,665	2,532,850
		무역수지	-737,090	-735,479	-797,060	-878,843
3	독일	수출액	1,328,940	1,344,355	1,448,191	1,589,655
		수입액	1,049,850	1,055,326	1,162,907	1,289,940
		무역수지	279,090	279,029	285,284	279,715
4	일본	수출액	624,801	644,933	698,073	732,629
		수입액	647,990	606,871	671,183	748,849
		무역수지	-23,189	38,062	26,890	-16,220
5	네덜란드	수출액	566,682	570,606	652,065	717,586
		수입액	506,256	500,797	574,646	620,568
		무역수지	60,246	69,809	77,419	87,018

<http://stat.kita.net/stat/world/trade/CtrlmpExpList.screen#>

# 독일의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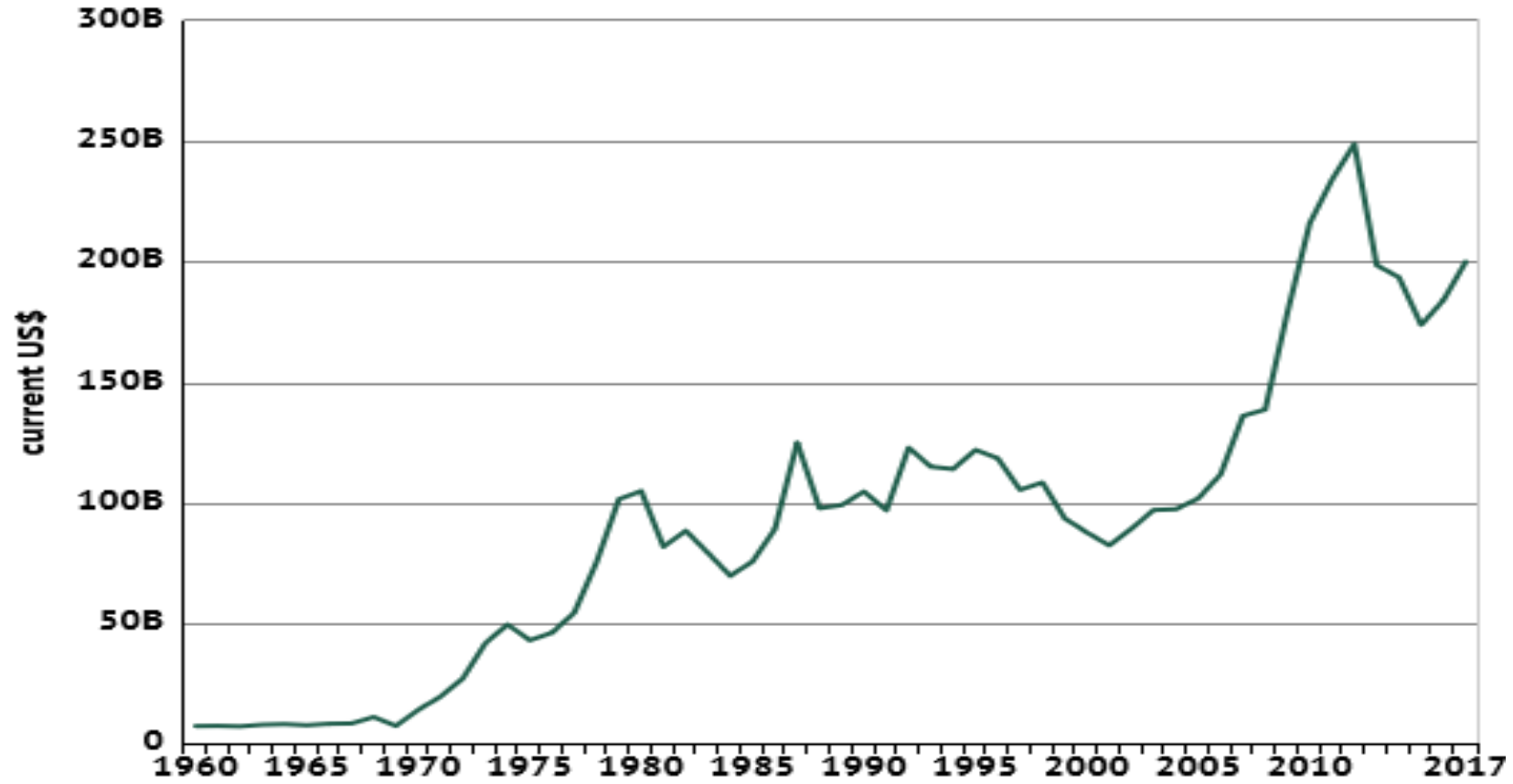
IMF: World Economic Outlook (WEO) Database, April 2019

- 세계 주요국의 경상수지(단위. Billion US dollars)

국가 (순위/189국가)	2018 (전년대비 %)	2017	2016	2015	2014
독일 (1)	294.3 (-0.22)	295.0 (-0.84)	297.5 (-1.22)	301.2 (3.50)	291.0 (15.25)
일본 (2)	174.1 (-11.23)	196.1 (0.65)	194.9 (42.82)	136.4 (270.81)	36.8 (-19.92)
러시아 (3)	114.9 (245.35)	33.3 (35.71)	24.5 (-63.76)	67.7 (17.64)	57.5 (72.05)
네덜란드 (4)	89.9 (3.01)	87.3 (38.74)	62.9 (29.72)	48.5 (-36.13)	7909 (-11.19)
대한민국 (5)	76.4 (1.57)	75.2 (-23.17)	97.9 (-6.84)	105.1 (26.60)	83.0 (7.47)

IMF: World Economic Outlook (WEO) Database, April 2019

# 국립의 외환보유액



• 세계 주요국의 외환 보유액(단위 US dollars)

국가 (순위/165국가)	2017 (전년대비%)	2016	2015	2014
중국 (1)	3,235,681,607,213 (4.46%)	3,097,658,396,172 (-9.03)	3,405,253,357,702 (-12.69)	3,900,039,358,441 (0.51)
일본 (2)	1,264,140,980,384 (3.91)	1,216,518,740,593 (-1.34)	1,233,097,778,805 (-2.19)	1,260,680,415,997 (-0.49)
미국 (5)	451,285,263,406 (11.17)	405,942,340,674 (5.79)	383,728,469,502 (-11.67)	434,416,453,480 (-3.14)
한국 (8)	388,804,901,514 (5.04)	370,154,198,303 (0.94)	366,707,255,996 (1.07)	362,834,710,646 (4.96)
<b>독일 (12)</b>	<b>199,983,070,124 (8.67)</b>	<b>184,031,310,247 (5.93)</b>	<b>173,730,921,330 (-10.21)</b>	<b>193,484,844,885 (-2.53)</b>
프랑스 (14)	156,322,431,109 (7.17%)	145,866,048,714 (5.55)	138,198,977,177 (-4.01)	143,977,170,863 (-0.82)

# 독일 - 유럽의 성장 엔진

- 원인

- ▶ 노동개혁

- ▶ 하르츠 개혁, 어젠다 2010

- ▶ 수출·제조업·중소기업의 경쟁력

- ▶ 유로화의 도입

# 독일 - 집구하기 전쟁

- 경제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

- ▶ 임대료 문제

- ▶ 2018년 5월

- ▶ 리모델링 건물을 점거하면서 임대료 폭등과 젠트리피케이션에 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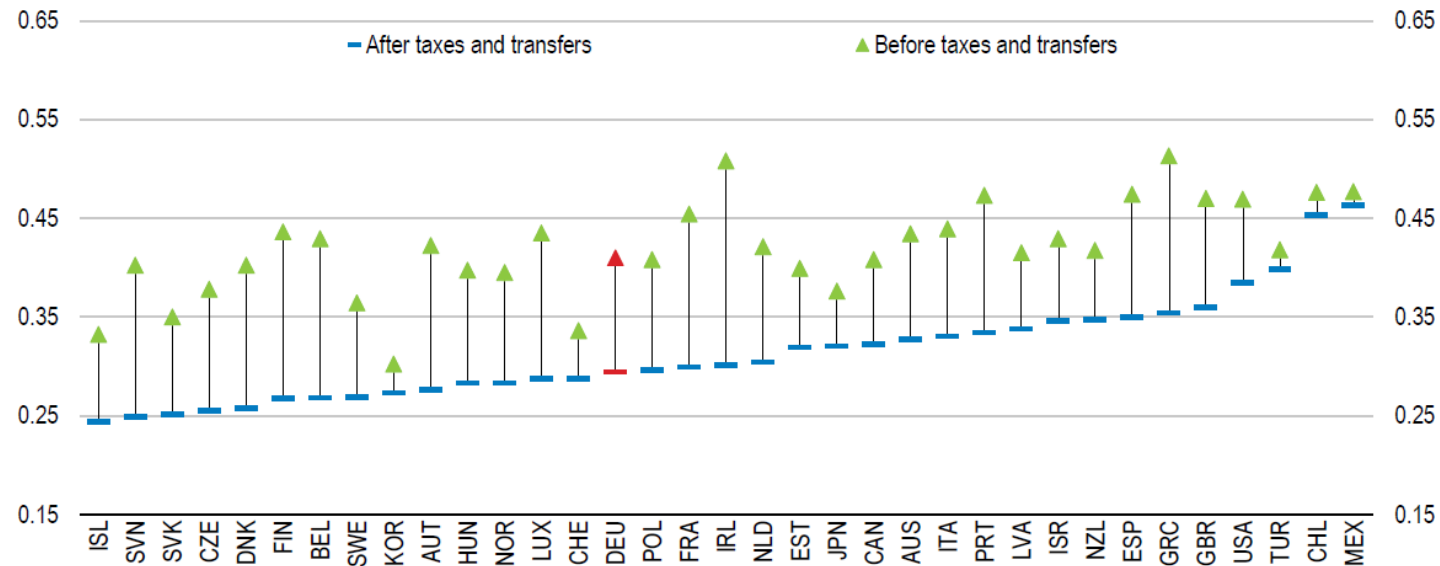
- ▶ 2019년 4월6일

- ▶ 임대사업자들 소유 주택에 대한 유상 몰수 주장

# 독일의 불평등 - 지니계수

**Figure 2. Income inequality among the working population is lower than in most OECD countries after taxes**

Gini coefficient, scale from 0 (perfect equality) to 1 (perfect inequality), 18-65 year-olds, 2015 or latest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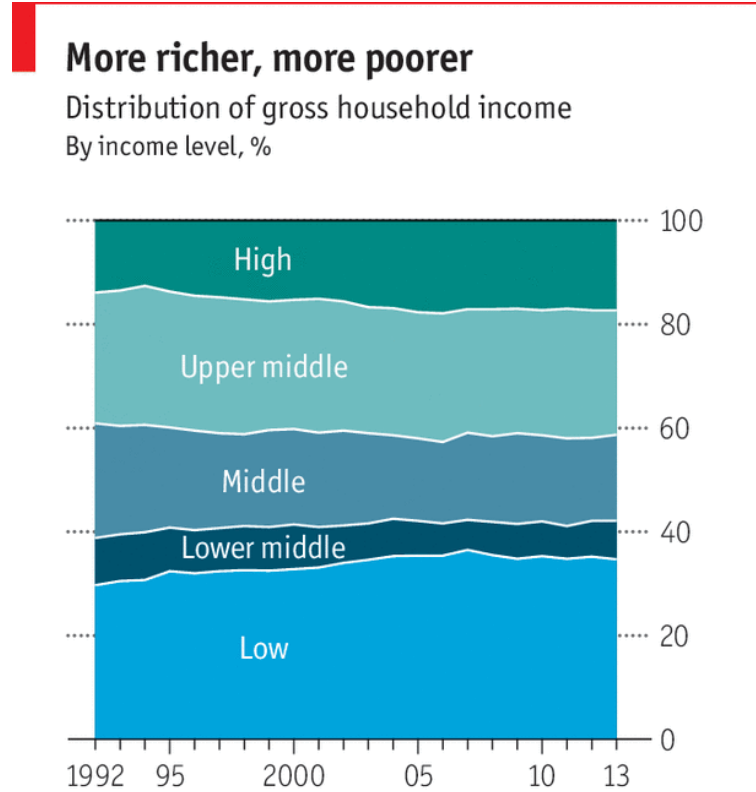
Source: OECD (2018),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database).

# 독일의 불평등 - 비정규직 비율

연도	비율(%)	연도	비율	연도	비율
1991	12	2000	17	2013	21.4
1992	13	2001	18	2014	20.9
1993	13	2002	18	2015	20.8
1994	13	2003	18	2016	20.6
1995	14	2004	18	2017	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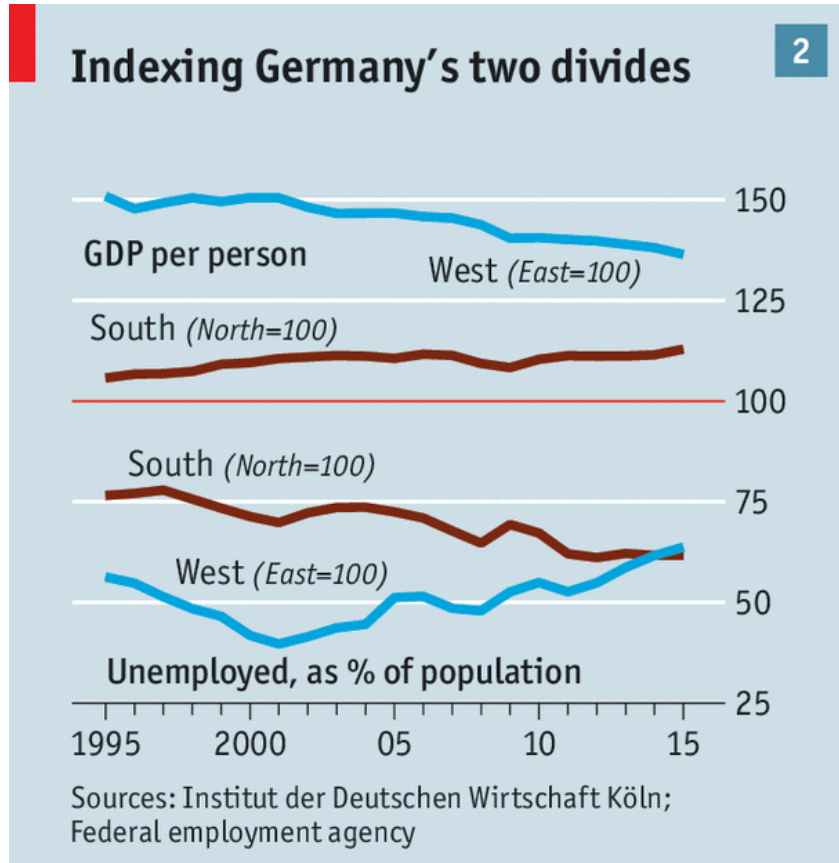
<https://www.destatis.de/DE/Themen/Arbeit/Arbeitsmarkt/Erwerbstaetigkeit/Tabellen/atyp-kernerwerb-erwerbsform-erwerbstaetige-zr.html>

# 국민의 불평등



<https://www.economist.com/special-report/2018/04/12/germany-may-be-rich-but-inequalities-are-widening>

# 독일의 불평등 - 동서·남북



# 독일의 불평등

- 근로자의 20 % - 시간당 10유로 미만의 저임금
- 역사적으로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 대비 근로자의 보수는 68 %
  - ▶ 2011년 이후에는 증가하지 않음.
  - ▶ 평균적으로 여성의 임금은 남성보다 21% 적음.
- 기회균등의 문제
  - ▶ 출신과 미래 전망의 밀접한 연관
  - ▶ 1980년 대학생의 64%는 노동 가족 출신, 현재는 대략 23%
- DIW(독일경제연구소)
  - ▶ 독일에서는 약 500 억 유로만큼 공평한 분배를 통해 GDP를 높일 수 있다.

# 포용적 성장

- 1980년대 이후 시장근본주의에 대한 반성
    - ▶ 2008년 금융위기, 2010년 유럽 발 재정위기
    - ▶ 소득불평등의 확대가 경제성장에 악영향
    - ▶ 경제성장의 속력 뿐만 아니라 그 방향 역시 중요
-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선진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에게  
그 개념이 대두

# 포용적 성장

- IMF, World Bank, OECD
  - ▶ 정책제안 용어로 출발
- 2016년 9월 항저우 G20 정상회담
  - ▶ 강인하고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히고, 포용적인 성장
  - ▶ 언론의 주목

# 포용적 성장

- World Bank - What is Inclusive Growth?(2009)
  - ▶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빈곤문제를 해소
- OECD - All On Board: Making Inclusive Growth Happen(2014)
  - ▶ 사회구성원 전체를 위한 기회 창출, 경제성장의 결실을 사회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분배하는 경제성장 – 포용적 성장
- IMF - Forstering inclusive growth(2017)
  - ▶ 포용적 성장: 성장의 혜택, 성장의 기회 결과의 광범위한 공유, 고용의 촉진, 시장 및 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 기회, 약자를 보호하는 성장

# 포용적 성장

- 이러한 논의들의 공통점

- ▶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

- ▶ 경제성장의 혜택이 전 사회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분배

- ▶ 이를 위한 국가의 시장개입

- ▶ 소득재분배, 노동시장, 보건의료, 교육, 환경 정책 등을 통해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 ▶ 경제성장의 결과가 공평하고 분배되어 다시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유도

- ▶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 모든 경제주체들이 성장에 기여하고 그 성과물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과정을 통해 경제성장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것

# 독일의 포용적 성장

- 독일은 현재 자신의 경제적 장점을 지속하고,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사회의 분열을 극복 – 향후 경제발전의 전제
- 사회적 시장경제 2.0
  - ▶ 좋은 일과 좋은 성과에 대한 좋은 보상
  - ▶ 이윤이 떨어지고 직원들이 해고되는 경우에도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보수, 보너스, 연금 공약 – 사회적 시장경제에 위배
  - ▶ 다양한 기회의 제공, 공정한 분배
  - ▶ 양호한 근무환경과 적절한 임금과 (직업)교육
    - ▶ 경제적 성공과 개인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
-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전통에 입각해 미래의 안정된 사회와 성공적인 경제 체제의 기반 제공
  - ▶ 포용적 성장

# 포용적 성장을 위한 연방정부의 10가지 제안

- 1. 투자에 대한 우선
- 2. 혁신을 위한 전제조건
- 3. 디지털 전략 2025
- 4. 독일과 유럽을 위한 산업정책
- 5. 교육기회 확대

# 포용적 성장을 위한 연방정부의 10가지 제안

- 6. 높은 고용 수준과 더 나은 임금
- 7. 유연하고 공정한 근무시간
- 8. 강력한 여성, 강력한 경제
- 9. 보호주의 반대, 세계화를 위한 공정한 무역
- 10. 고용 및 성장 촉진을 위한 조세 체계